

시론



천세진 문화비평가·시인

큰 폭력이 구조적으로 활개치면 작은 폭력은 무시된다. 한 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 폭력 중에 어떤 형태의 폭력이 가장 두드러지는가를 살피면 그 사회가 어느 정도의 폭력 사회인가를 진단할 수 있다.

가장 폭력적인 사회는 전쟁 중인 사회다. 비록 적군에 한정한다고는 하지만 전쟁 중에는 살인이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실제 상황에서는 폭력이 군인에게만 미치지 않는다. 군인과 민간인은 구분되지 않는다. 법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강간, 고문, 폭행 같은 폭력은 정치의 대상에서 쉽게 벗어난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재집권 상황에서 그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했다. 법집행은 자의적이었고, 이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복수라는 이름으로 즉결 처형되었다. 아무 집이나 들어가 여성을 탈레반 군사와 결혼시키는 것은 강간이나 다름없지만 막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탈레반은 사리아법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그건 더욱 잔혹하다. 폭력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기 때문이다. 전쟁 중인 사회에서는 작은 폭력은 고사하고 큰 폭력조차도 제대로 제어되지 않는다.

아티크 라히미는 그의 소설 '인내의 돌'에서 여성에 대한 문화적 폭력이 남부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작품 속에 이런 문장이 있다. "당신들, 남자의 세계에 선 자존심이 왜 그리도 피와 연관되는지 난 정말 이해가 안 되어서." 자존심은 종종 복수의 다른 이름으로 나타난다. 자존심이 문화의 탈을 쓰면 얼마나 폭력적인 사회가 될 수 있는지를 이 한 문장이 명쾌하게 보여준다.

한국은 어떤 사회인가. 한국은 전쟁 중인 사회는 아니지만, 일제의 압제와 분단 상황, 오랜 군부 통치기를 통해 전쟁 중인 사회에 비유되는 폭력성이 주입된 사회다. 최근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다는 국내외의 평가가 잇따르고 정부에서 선진국 진입을 자찬하고 있지만, 폭력의 형태와 양상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거울 속의 폭력

국가 권력은 이미 폭력성을 내재하고 있다. 피에르 부르디외는 국가 주도의 교육 행위까지 상징적 폭력으로 보았을 정도다. 선진국은 자신의 폭력성을 정치적으로 제어하고, 각종 범죄적 폭력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킬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한다. 그 두 가지를 잘해야만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잔혹한 범죄들의 대상은 대부분 여성과 아이들이다. 선진국으로 불리는 국가에서도 폭력적 범죄의 대상에서 여성과 아이들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범죄에 대한 대처에서 우리와 차이를 보인다. 약자인 여성과 아이들을 향한 잔혹 범죄에 대한 구형량에서 한국은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

폭력에 관대하면 폭력은 관대한 수준만큼 잔혹해지고 높아진다. 이 은주 의원(정의당)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간 살인·살인미수, 폭행·상해, 감금·협박, 성폭력 등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된 4만7천여명 중에 구속된 이가 2천7명으로 전체의 4.2%에 불과했다고 한다. 법적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관대한 처벌은 폭

력을 지속시키고 단순 폭력이 강간, 살인 등 더 심한 폭력으로 발전하게 만든다. 결국 국가가 잔혹한 폭력을 방조한 셈이 된다.

폭력에 대한 대응과 형량은 폭력에 대한 그 사회의 인식을 반영한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적, 육체적, 정신적 폭력에 대한 낮은 형량은 그 사회가 그런 행동을 범죄로 인식하는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확장하면, 여성을 성적 도구로 여기고, 아동을 보통의 인간이 아닌 낮은 수준의 인격체로 여기는 것을 말한다. 그런 인식은 자연발생적이지 않다. 만든 대상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쓰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매일 폭력에 몰든 뉴스를 접한다. 하위 카스트 계급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난무하는 인도, 앞서 언급한 아프가니스탄 등 멀리 있는 나라의 폭력까지 접한다. 그 모든 폭력을 거울처럼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닳지 않았다고, 나는 폭력적이지 아니라고, 우리 사회는 인도나 아프가니스탄과 다르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말은 가해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오로지 피해자에게만 있다.

방역 비웃는 도심 야외 출판 용납해선 안돼

추석 명절이 끝나자마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는 엄중 시국이다. 전국 이동량이 많았던 터여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상황은 심각하다.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코로나 발생 후 1년 8개월여만에 일일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3천명을 훌쩍 넘어섰다. 방역 당국은 초비상이다. 조금만 느슨해지면 어김없이 감염이 파고드는 고민이 커진다. 아울러 방역을 비웃는 듯한 위반 사례도 적지 않아 애를 태우는 모습이다.

도심 공원·체육시설 등 야외에서 최근 출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불편한 소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주점 등이 밤 10시에 문을 닫으면서 20-30대 청년들이 다음날 새벽까지 자리를 갖는 것으로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연휴 기간 100-300명 정도씩 몰린 서구 염주체육관 잔디밭에서는 방문객이 확산돼 파장이 컸다. 배달 오토바이들이 많이 다녔고, 산책하면서 삼삼오오 모여 앉아 술 마시며 고성방가를 일삼는 사람들도 허다했다. 사실상 터질게 터졌다. 북구 전남대학교 대운동장과 동구 문화전당역 인근 공원 또한 간발

社說

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술병, 담배꽂 등 쓰레기가 쌓여 오가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사태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실질 조치기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노상 음주·취식 행위 금지에 대해 권고 수준에 그치지 말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차량을 통제하고 사전 계도활동을 벌인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일말의 관용도 허용해선 곤란하다. 방역의 고삐를 더 죄야 하겠다. 물론 개인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 나는 괜찮겠지 아닐까 태도가 문제다. 이는 타인을 배려하지 않은 명백한 해악이다. 안전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노력에 모두가 동참해야 할 때다.

추석 연휴 이동량 증가, 개인간 접촉면 확대, 방역조치 이완으로 확산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위드코로나' 단계로 가는 중대 분수령인 셈이다.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을 내주길 바란다. 민·관이 협력해야 한다. 그래서 재차 강조하고 싶다. 일탈은 안된다.

인기몰이 중인 광주·전남 두 가지 비엔날레

광주시와 전남도내 일원에서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예술축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코로나19의 기세 속에 방역과 안전을 최우선해 인기몰이 중이다.

2021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추석 연휴 관람객 수가 평일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잠시나마 여유로운 명절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다채로운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마련했고 체험형 대신 중정형 이벤트로 진행한 게 주요했던 것 같다. 만 12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통놀이 키트를 제공해 호응을 얻었으며, 온라인상 '보물상자'를 열어 인종상 '올라가' 이벤트 역시 즐거움을 더했다.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코로나 비대면 시대, 온라인 전시문화의 새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누리집에서 운영하는 전시관(미술관·영상관 등)에는 목향에 흠뻑 빠진 관람객이 몰려 전체 인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목포문화예술회관(삼연날레 1관)의 사전예약제와 정부 미술관 기준보다 강화한 인원 제한 등이 효과를 냈다.

제로 내건 디자인비엔날레는 제로웨이스트 전시를 비롯해 기술과 감성의 콜라보 등 실험적인 시도를 통해 미래 디자인이 가야할 길을 제안했으며 환경에 대한 관심은 주제관을 통해서도 드러내 주목받고 있다. '오채찬란 모노그램...새로운 출발'이라는 주제로 한 수목비엔날레는 목포문화예술회관과 진도 운림산방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부채·머그컵 만들기, 캘리그래피 등이 어린이 동반 관람객에게 필수 방문 코스로 자리잡았고 '1가정 1수목화 갖기 운동'과 연계한 아트페어와 마켓에도 관심이 쏠렸다.

두 예술축제는 오는 10월31일까지 열리는데 반환점을 앞두고 가장 힙(Hip)한 행사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수준 높은 전시 구성을 알아봐 주고 감상하는 문화도시 주민들의 높은 안목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의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하겠다. 꼭 유념해야 한다. 한 치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안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아침을여는詩

라면

정용국

손을 대면 바스라치는 저놈의 성깔에다 울음이 몸을 말고 걸마져 까칠하기는 영달아 등돌려버린 저 봉지 속 능구렁이 헛헛한 순간마다 마른 몸을 살라내면 은근히 어머니는 엄마의 괴충처럼 뉘라도 외롭지 않다 살갑고 푸근하다 시름 타래 풀어내고 간을 맞춘 멸국에는 알싸한 밥도 오고 찜새끼를 시름도 모여 백동전 몇 잎 앞에서 두 무릎을 꿇는다

(시집 '동두천 아카펠라', 지우북스, 2021)

[시의 눈]

바람 불고 낙엽 날리던 속은 공(空)해집니다. '생리'이라도 먹여 봉지 때 뿌십니다. 허, 놈은 성깔조차 '까칠'합니다. 봉지 뚫고 튀는 조각을 줍습니다. 학교에서 돌이와 배가 '헛헛'할 때면 엄마를 조르곤 했더랬지요. 그럼 '괴충'에서 무슨 돈이라도 되는 양 고무줄 동여맨 라면조각을 쥐어주었거든요. 라면 앞면 평 등합니다. 밥상이 따로 없지요. 냄비뚜껑 받치고 '두 무릎을 꿇'으면 금방 탁 터지게 싸운 시일이저러도 화평치고 만니다. 마라톤나 임종이나 촬영조의 힘이기도 했지만, 난 라면집에서 소주와 시국담을 섞어 마시기도 했지요. 집에 손님이 오면 어머니는 라면 한 봉지를 어렵사리 구해오곤 했습니다. 그걸 가마솥에 썰고 함께 끓였어요. 식구가 많으니 '늘먹기' 위해서였지요. 궁핍의 시대 '라면과자'나 '라면죽'이 생각나는 건 거스르고 싶지 않은 추억이 아닙니다. 머리 맞대던 라면의 정이 돌아오지 않아서지요. 현대, 길에 누군가 타 먹지 않은 컵라면을 쏟아 버렸습니다. 보는 이가 욕을 던집니다. 마치 라면에게나 하는 것처럼 들리는군요. 원 횡재라도 한 두 그릇 쓸어 먹던 옛 시대는 가고, 오늘은 아스팔트라는 진열대에 박혀되어 이 절단 우리를 그 오래 쳐다봅니다 그대.

정용국 시인은 경기 양주에서 나 서울에다 문예창작고를 졸업했고, 2001년 '시조세계'로 등단했습니다. 시집 '명왕성' 있다(2007), '난 네가 참 좋다'(2015) 등을 펴냈습니다. 그는 삶의 역경을 유연한 풍자로 극기하는 동두천 시인입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노정수·시인)

자치칼럼



서순복 품주자사시민들 대표회장 조선대 법학과 교수

흔히 인용하는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는 가정과 이웃을 포함해 지역사회의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일 것이다. 가족이 해체되고 학교폭력이나 청소년흡연이 무관심과 소외 속에 일어나고 있지만, 그만큼 지역사회와 주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마을공동체와 마을교육공동체도 중요하다. 나아가 학교 주변에 안심하고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유해한 위락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며, 아이들에게 해로운 먹거리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학교 교육과정의 궁극적 목표는 민주시민의 양성이라고 할진대, 학교교육이 지역사회와 유리되어 전개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

학교에 마을을, 마을에 학교를

에 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사회와 교육에서는 말이다. 마을의 유래를 포함해서, 마을이 갖고있는 문화유산과 아이들이 사는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물들에 대해서 알알수록 아이들도 지역에 대한 애정과 사랑도 커갈 것이고, 학교를 졸업하고 봉사해야 할 지역사회 공동체에 관심과 안목도 늘어날 것이다. 다시 말해 학교에 마을이 들어와야 한다.

근래 들어 지방자치단체들이 학교 교육의 혁신을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로 파악하고, 마을 연계 학교 정책을 사회혁신의 일환으로 보고, '마을만들기' 활동의 범주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과정에서 영유아 보육과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과후 교육의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가 마을만들기의 중요한 계기로 되고 있다. 한편 2019년 서구 금호1동 주민자치회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의 대상 상을 받았다. 소중 화합 협력의 주민자치를 내세우고, 기존 아파트총회가 아파트 자체의 건의사항과 기성세대 위주로 마을의 의제가 도출되는 아쉬움을 극복하고 마을을 향한 다양한 시선을 공유하기 위해 학교별 마을총회를 실

시한 것이 돋보였다. 민(주민자치회, 동보장협의회, 자생단체 등), 관(구청, 행정복지센터 등), 학(금부초교, 금호중 등)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제들이 도출되는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예컨대 학생들만의 취미생활과 수도도 풀고 스트레스도 날려 버릴 수 있는 학생들만의 쉼터 조성성이 마을의제가 되고, 학교 오가는 길에 담배꽂이가 없고 담배연기가 없는 쾌적한 학교주변 조성이 마을의제가 된 것이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이뤄냈다. 광주의 마을교육공동체 기본방향도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마을주민들의 다양한 재능과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위한 배움터가 되고 마을과 지역 사회의 배움을 통해 미래사회에 걸맞은 인재로 키우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어야 한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학교인 주민자치의 성공을 보장하는 확실한 장치라고 일찌기 브라이스는 설파하였다. 왜냐하면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공동체에서 마을의제에 대해 합리적 토론을 토대로 양보와 타협을 하고, 그 합의된 사항을 지방정부와 교섭한다는 점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등 민주적 절차에 익숙해진다는 것이다. 나아가 지방정부 정책과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점에서 주민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게되고 지방정부 역할에 비판적 안목으로 접근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가게 된다.

마을이 학교라고 한다면 이상하게 들릴까. 민주주의는 저절로 되는 게 결코 아니다. 주민이 태어나면서부터 민주주의를 익힌 것은 아니지만, 마을공동체가 민주주의의 학교다. 생활속 민주주의 훈련을 마을에서 구체적으로 몸소 익혀야 한다. 서로 다른 의견을 토론을 거치면서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주민자치는 민주주의 실천의 구체적 장인 생활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주민자치회가 2013년 시범사업을 거치고 시행해온 지 이제 10여년이다. 갈 길이 멀다. 한국사회의 절실한 민주주의는 이뤄졌지만, 진정한 민주주의는 삶의 현장인 마을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마을이 민주시민교육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하지만 마을단위에서 자체교육은 어렵다. 시민사회단체와 자치단체와 평생교육기관이 힘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나무는 희생과 봉사와 사랑을 먹고 자란다.

현장칼럼



양영규 광주 서부소방서장

추석이 지나면서 이제는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 얇은 옷 하나로는 부족함을 느낄 시기가 되었다.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0월은 평균적으로 심·뇌혈관 질환 사망 및 급성심장정지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이며 국내 사망원인 중 약 4분의1을 순환계통 질환이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매년 9월에는 세계 응급처치의 날(9월 둘째 주 토요일) 및 세계 심장의 날(9월29일) 등

나의 응급처치로 나의 가족 지키기

응급처치와 관련된 기념일이 지났으며, 응급처치 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선제적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

모든 질환은 예방이 중요하듯 심·뇌혈관 질환 및 심장정지 또한 선제적인 예방이 중요하다.

과거에 비해 현재는 식습관이 달라졌으며 운동 부족 등으로 고혈압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본인의 몸 상태를 평소 체크하여 이상여부에 따라 병원진료 받기를 권한다.

고혈압이 있는 환자는 추운 곳에 오랜 시간 있거나 갑자기 추운 곳으로 나오는 것을 피해야 하며 특히 고령자는 화장실, 목욕탕 등 급격한 기온 변화나 혈압 변화를 가져오는 곳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편 반응이 없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쓰러진 사람이 심장정지 상태

라고 판단하고 즉시 119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를 요청해야 하며 일반인은 호흡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119상황요원의 도움을 받아 호흡반응을 확인한다.

심폐소생술 실시 전 주의해야 할 점은 현재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심폐소생술 시행자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환자에게도 마스크 또는 천,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덮고 가슴압박을 실시해야 한다.

가슴압박은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 정중앙(복장 뼈의 아래쪽 1/2)에 한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올려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올려서 겹친 뒤 깍지를 낀 자세로 압박 깊이는 약 5cm, 가슴압박의 속도는 분당 100-120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의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에 의하면 광주광역시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12.2%로 가장 높은 서울(38.4%)과는 3배 이상 차이가 나며 생존율 또한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시행(13.5%)과 미시행(5.8%)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는 최초 목격자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만 심장정지 4분 후 발생하는 뇌의 비가역적 손상을 막아 환자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심장정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가정(56.5%)으로 심장정지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가족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응급처치 생활화를 실천하기 희망해본다.

\* 외보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8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30 지역특집부 650-2060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문화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광고문의 650-2099 광고국 650-2072 경영지원국 650-2010 기획사업국 650-2079 업무국 650-2020
FAX 광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가)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